제5장

한국 양명학 연구

선병삼

1. 머리말

본 내용은 2018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한국 양명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과 국내의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후보지) 25개, 유교학 4개, 기타인문학 1개, 중국어와 문학 1개이다.

이상의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 양명학〉 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 19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인물별 분류에 따른 해당 논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을 했다. 인물별 분류는 편의상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강화학파 관련 논문이고, 둘째는 근현대 양명학 관련 논문이고, 셋째는 기타 논문이다.

2. 인물별 분류

1) 강화학파 관련 논문(1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현정	하곡 정제두의 체용관 연구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강보승	하곡 정제두의 『대학』 해석과 격물치지론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유정연	鄭齊斗와 中江藤樹의 『大學』 解釋 比較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4	김윤경	조선후기 주자학과 양명학의 지행논변과 그 함의－정제두와 그 친우들의 지행논변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5	김윤경	霞谷學과 茶山學의 사상적 연계 고찰을 위한 試論－四德 · 四端論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6	이남옥	하곡 정제두의 인적네트워크－혼인관계와 墓道文字 찬자를 중심으로－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7	진성수	하곡 정제두의 자녀교육－「名兒說」을 중심으로－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8	천병돈	후기 하곡학파의 실천정신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9	김윤경	후기 하곡학파의 진가론(眞假論)과 실학(實學)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김수진	양명학 텍스트의 專有와 流布－정제두 抄集 양명학 문헌의 발굴과 검증－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11	심경호	강화학안 편술의 제안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한국 양명학 관련 전체 19편의 논문 중에서 근현대 양명학으로 분류한 박은식, 정인보, 이건방을 포함하면 강화학파와 관련된 연구는 총 16편으로 전체의 80%를 상회한다. 이는 17년도와 비교하면 편수와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다. 한국 양명학 연구에서 강화학파의 위상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양명학(양명후학) 연구논문 편수는 감소하고 하곡학 연구 편수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1) 박현정의 「하곡 정제두의 체용관 연구」는 하곡의 체용관을 연구한 글이다. 박현정은 북경대(北京大)에서 양명학으로 학위를 받은 신진 연구자로 양명학자들의 체용론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있다. 정제두는 조선을 대표하는 양명학자라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기존 연구 성과를 일별하면, 정제두 양명학의 독자성을 밝히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연구자들은 중국 양명학과 구별되는 점을 주목하는데, 체용론도 그중 하나다. 양지 본체가 천리(天理)와 명각(明覺)의 즉체즉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정제두는 유체유용의 체용선후의 특징을 짓는다는 입장이다. 즉체즉용의 논리는 양지를 정식(情識)으로 오인하고, 창광방자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현정의 주장도 결국은 기존 연구 태도와 대동소이하다.

박현정의 주장은 이렇다. "정제두 사상의 특징을 체용론적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정제두의 체용관은 왕수인의 기본적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즉체즉용, 즉용즉체(卽體卽用, 卽用卽體)를 기반으로 한다. 둘째, 하곡의 사상적 구조는 즉체즉용의 바탕 위에 다시금 본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을 띤다. 이는 작용에 대한 본체의 우선성과 질적 차별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본체 중심의 체용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곡은 즉체즉용, 즉용즉체를 말하면서도 다시 본체를 중심으로 하는 체용관을 전개하였다. …… 본 연구는 체용론적 분석을 통해 하곡의 사상적 특징을 분석하고 여타 양명학파와 구별되는 정제두 체용관이 가지는 공부론 상에서의 차별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정제두 양명학의 특징을 옹호하기 위한 박현정의 선한 의도가 과연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 다루겠다.

(2) 강보승의 「하곡 정제두의 『대학』 해석과 격물치지론」은 정제두의 『대학』관을 서술한 글이다. 이 글은 정제두의 〈대학설(大學說)〉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정제두의 『대학』관은 『고본대학』을 기반으로 하며 주자의 즉물궁리가 아니라 성의를 중심에 둔 『대학』관으로 요약한

다.

『대학』은 주자 성리학이 표방하는 지성주의를 옹호하는 경전적 근거가 되거니와 양명 심학의 성립을 촉진한 경전이기도 하다. 주자는 『대학』의 핵심이 격물치지에 있다고 보며,「보망장」에서 즉물궁리로 설명한다. 양명은 『고본대학』을 기준으로 삼으며 성의(誠意)가 핵심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강보승이 논문에서 논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정제두 『대학』관의 특징은 무엇인가? 지선(至善)과 효제자(孝悌慈)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지선은 양지의 본체(知者心之本體, 卽至善之發也)로 구체적 내용으로 말하자면 인경효자신(仁敬孝慈信者, 此心之至善也)이면서 효제자(孝弟慈)이다. 특히 효제자(孝弟慈)는 『대학』에서 제가(齊家)의 덕목이면서 치국(治國)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제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효제자(孝弟慈)를 부각시켰다. 왜냐하면 지선은 명명덕(내성)과 친민(외왕)이 통일적으로 완성되었을 때에만 진정한 지선이기 때문이다.

(3) 유정연「鄭齊斗와 中江藤樹의 『大學』 解釋 比較」는 17세기 이후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상계에서 양명학을 대표하는 정제두와 나카에 토쥬의 『大學』 해석의 同異를 따졌다. 정제두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양명학자인 것처럼 나카에 토쥬는 일본 양명학의 시조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유정연의 주장은 이렇다. "나카에 토쥬는 의(意)를 마음이 기대는 바[心之所倚]로 규정하여, 이를 '나쁜 · 편협된 생각[惡念]'의 근원지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정제두와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는 『대학고(大學考)』에서 성의(誠意)를 보다 구체적으로 절의(絶意)와 무의(毋意)의 두 영

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정제두는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이 날줄에 해당하는 경(經)으로 보았고, 지어지선(止於至善)을 씨줄에 해당하는 위(緯)로 보면서, 이들 상호 간의 관계를 경위설(經緯說)로 일축하였다. 나카에 토쥬는 삼강령 가운데 오직 명명덕(明明德)만이 중요할 뿐, '친민'과'지어지선'은 명덕이 구현되는 작용[用]의 세계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정제두와 나카에 토쥬를 비교한 연구는 의의가 높지만 독해와 평가에서는 억측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4) 김윤경의 「조선후기 주자학과 양명학의 지행논변과 그 함의: 정제두와 그 친우들의 지행논변을 중심으로」는 지행론에 관한 글이다. 김윤경은 근래 강화양명학 관련 논문을 왕성하게 발표하는 연구자이다. 양명이 지행합일을 제창한 이래로 송명이학에서 지행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논제 중 하나다. 알아도 행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 지행합일을 주장한 양명의 입장은 상식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덕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에서 지행합일은 양명학 정신이 온축된 명제이기도 하다.

김윤경의 정리는 이렇다. "당시 지행논변의 쟁점은 선지후행(先知後行)과 지행병진(知行竝進)의 문제에 있었다. 박심, 민이승, 최석정은 도덕활동의 주체는 심(心)이지만 궁리(窮理)와 함양(涵養)을 통해 객관도리와 내면의 도리가 조응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견문지의 습득에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주희와 마찬가지로 선지후행(先知後行), 궁리(窮理)와 함양(涵養)의 상수(相須)라는 측면에서 지행병진(知行竝進)을 견지했다. 정제두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도덕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양지(良知)에 주목하여, 지행(知行)이란 양지의 체용(體用)이므로 합

일(合一)이라고 주장했다."

(5) 김윤경 「霞谷學과 茶山學의 사상적 연계 고찰을 위한 試論—四德·四端論을 중심으로」는 정제두와 정약용이 사덕과 사단을 논하는 유사점에 착안한 글이다. 주자학은 성발위정에 근거하여 사덕이 있어 사단지심으로 발현된다는 입장이다. 양명학은 사단지심이 사덕이라는 입장이다. 사단이 없으면 사덕도 없다고 본다. 양지를 천리명각으로 보는 양명학에서는 당연하다. 다산은 성기호설을 주장하면서 역시 사단을 통해 사덕을 본다는 입장이다.

김윤경의 주장은 이렇다. "이들의 공통된 이해는 사덕·사단(四德·四端)의 개념 규정하는 문제와 사단칠정(四端七情)의 선·불선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덕·사단에 대해서 하곡과 다산은 모두 '단(端)'을 곧 '시(始)'로 보고, 사단은 곧 본원의 시작점이며 사덕은 행사(行事)가 이루어진 뒤 사단이 확충된 결과라고 하였다. 이들은 성(性)을 고정적이고 형이상적인 실체로 보는 것을 부정했다. 사단칠정의 선·불선 문제에 대해 하곡과 다산의 결론은 동일하다. 사단도 불선할 수 있고 칠정도 선할 수 있으며, 불선의 원인이 기질에 의한 것은 아니고 매사 천리와 인위의 구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불선의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은 인성에 대한 규정차로 인한 상이점이 존재한다. 하곡은 불선의 상태가 성이나 양지의 가려짐이며, 사단의 확충은 도덕판단과 행위 속에서 항상 志에 따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았다. 반면 다산은 선·불선은 자주권(自主權)의 선택이며 천리(天理)의 공(公)을 따르는가 인욕(人欲)의 사(私)를 따르는가에 달려있다."

(6) 이남옥의 「하곡 정제두의 인적 네트워크: 혼인관계와 묘도문자(墓道文字) 찬자를 중심으로」 논문은 정제두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고 양명학적 계보가 형성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7) 진성수의 「하곡 정제두의 자녀교육: 「名兒說」을 중심으로」는 명아설을 중심으로 정제두의 자녀교육을 오늘날의 교육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글이다.

(8) 천병돈의 「후기 하곡학파의 실천정신」은 학곡학의 실심 정신이 역사의 현장에서 드러난 모습을 소묘한다. 영재 이건창, 경재 이건승, 난곡 이건방, 위당 정인보 등을 통해 그들이 실심을 바탕으로 서세동점과 일제 강점기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살핀다.

(9) 김윤경의 「후기 하곡학파의 진가론(眞假論)과 실학(實學)」은 진가론을 따지는 글이다. 한국유학사에서 진가론은 변환의 시기에 등장했다. 여말선초에도 진가론의 논의가 있었다. 김윤경은 하곡학을 규정하는 실심실학에 더해 후기 하곡학파를 일진무가로 표현한다.

김윤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곡학파의 사상적 특징은 일반적으로 실심실학(實心實學)이라고 한다. 이는 하곡의 직전 · 재전 제자들이 실심(實心)을 중시하고 하곡 철학의 요체를 실(實)의 강조와 실학(實學)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기 하곡학파 이후로는 진가(眞假) 개념이 강조된다. 특히 후기 하곡학파에서는 여전히 실(實)을 중시하지만 진가(眞假) 개념을 더 많이 쓰며, 실학(實學) 개념도 선대 하곡학파가 사

용하는 것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곧 "초기 하곡학파의 실학은 실심(實心)을 실행하는 학문을 의미했고 그것은 성학(聖學)에 다름 아니었다. 후기 하곡학파는 본래 하곡이 본심의 주체성, 진실성, 완전성을 표현한 진(眞)과 남의 이론과 권위를 빌려오는 가(假) 개념을 계승했으며 양득중의 가도의론(假道義論)과 실사구시론(實事求是論)을 수용하여 실학의 개념을 확대발전시켰다. 이건방은 진(眞)의 의미를 일상의 도리로서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진(眞)의 사회적 의미와 진가론의 사회비판 논리적 성격을 강화시켰다. 정인보는 허(虛)를 실(實)로 돌리게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실학이지만, 진정한 실학은 일용상행(日用常行)의 도리로서 민중(民衆)의 복리(福利)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맥락에서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으로 조선 실학의 계보를 수립했다. 정인보의 실학 개념은 전내실기(專內實己)로부터 일진무가(一眞無假)로 정리되는 하곡학의 사상적 계승과 발전의 과정 속에서 정립되었다. 이는 단순히 당대 현실에 부합하여 실용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주체성과 감응성을 지니는 본심의 작용이 필연적으로 민중의 감통을 동반하여 정신적 복리 추구로 귀착된다는 사상적 토대에 기반 한 것이다."

⑽ 김수진의 「양명학 텍스트의 專有와 流布 – 정제두 抄集 양명학 문헌의 발굴과 검증 –」은 2017년에 발굴된 규장각 소장 정제두 초록 양명학 문헌을 조사 보고한 글이다.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하곡집』은 정식으로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 오늘날까지 내려왔다. 그 과정에서 유실된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진은 정제두가 왕양명의 글을 정리한 자료를 발견하고 이에 대

한 연구를 진행했다. 본 초록을 통해 정제두가 양명학을 이해하는 일단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 초록이 유포되는 과정은 강우들과의 논쟁에도 관여되어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수진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파악된 정제두 관계 양명학 문헌은 필사본으로만 9종이 있는데 크게 『양명학용설(陽明學庸說)』 계열과 『양명학록(陽明學錄)』 계열로 구분된다. 『양명학용설』 계열은 규장각본 종과 국중본 종이 있고 『양명학록』 계열은 규장각본 종 국중본 종 장서각본 종이 있다. 이들 문헌은 공히 『전습록』의 내용을 망라하면서도 편차의 해체와 재배열 부분적 초록 권점의 부여를 통해 기존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세심한 내용 선택과 수록 차서의 조정 생략과 강조를 더해 기존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전유하였다."

(11) 심경호의 「강화학안 편술의 제안」은 강화학안의 편술을 제안하면서 강화학파의 성격을 이렇게 정리한다. "강화학파와 양명학과의 관계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강화학파 내부의 사유체계도 균질적이거나 계수적(繼受的)이지 않다 하지만 정인보가 『양명학연론』에서 제기한 것과 강화학파 구성원들의 개개의 활동을 살펴보면 강화학파로 언급되거나 연계 관계에 있는 인물들은 첫째 허가의 비판, 둘째 실심의 환성(喚醒), 셋째 측달의 감정인 '아틋'의 발로 등 세 가지 국면에서 교조주의적 주자학 혹은 성리학과는 다른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2) 근현대 양명학 관련(5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용구	白巖 박은식『王陽明先生實記』의 내용과 특징 분석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2	황종원	양계초의 유교에 대한 견해가 박은식에게 미친 영향－유교의 근대화와 종교화 문제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김우형	주자학과 양명학, 그리고 '국학'의 형성－주체성과 실심(實心)의 계보학	한국철학논집	한국철학사연구회
	박태옥	위당 정인보 시문에 나타난 미의식과 '실심'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한국동서철학회
	한정길	蘭谷 李建芳의 양명학 이해와 현실 대응 논리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김세정	한국근대양명학에 관한 연구 현황과 전망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 김용구의「白巖 박은식『王陽明先生實記』의 내용과 특징 분석」은 박은식의『양명선생실기』를 분석한 글이다.『실기』는 왕양명의 주요 행적과 사상을 편년체 형식으로 서술하면서 박은식이 안설(按說)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이 안설이 박은식의 생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김용구는 현행 30개의 안설에 자신이 더 찾아낸 2곳을 포함하여 32곳을 소개한다.

(2) 황종원의「양계초의 유교에 대한 견해가 박은식에게 미친 영향: 유교의 근대화와 종교화 문제를 중심으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넘어가는 시기에 양계초(梁啓超)의 유교에 대한 견해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그 견해들이 박은식의 유교 근대화 및 종교화 모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한 글이다.

황종원의 설명은 이렇다. "양계초는 이 시기에 서구 열강의 제국주

의적인 침탈에 맞서 중국의 봉건적인 국가체제와 사회문화를 근대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강한 중국을 재건하려 했다. 그는 동서양사상의 선택적 종합을 통해 실천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유위(康有爲)는 양계초의 스승이다. 강유위는 유학의 인(仁), 민본주의, 대동사회의 이상, 불교의 자비와 중생 제도의 정신, 춘추공양학의 삼세설(三世說) 등을 서구 기독교의 박애와 구세정신, 근대민주정치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 발전적 역사관 등과 결합하여 자신의 사상체계를 정립했다. 양계초는 전반적으로 스승의 사상을 계승했다. 박은식은 청년기에 정통 주자학도로서 위정척사론의 입장에 기울어 있다가 40세 무렵부터 개화사상가로 변모하고 일제에 의해 망국이 가시화되는 1905년부터는 애국계몽운동과 유교개신운동의 중심인물로 활동한다. 이 시기 양계초 논저와의 접촉은 사상적, 실천적 전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유교의 근대화에 대한 양계초의 견해는 박은식에게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유교의 종교화에 관해서는 중요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양계초가 주로 근대화에의 유용성을 준거로 종교화의 가치를 판단한 반면, 박은식은 도덕종교로서 유교의 이상이 근대에도 여전히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3) 김우형의 「주자학과 양명학, 그리고 '국학'의 형성-주체성과 실심(實心)의 계보학」은 정인보의 국학 사상에 나타나는 주체성과 실심(實心, 참된 마음) 정신의 역사적 계보를 추적하고 그 특징을 조명한 글이다. 김우형은 주자 인식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로서 본 논문은 연구의 영역을 확대한 성과물이다.

김우형의 주장은 이렇다. "근세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주체성과 실

심이 주요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 송대(宋代) 신유학(新儒學)에서 비롯된다. 정이(程頤)는 주체의식을 강조한 최초의 사상가이며, 주희(朱熹)와 왕양명(王陽明)은 정이의 주체성의 원리에 입각한 사상을 계승하되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조선시대 정제두(鄭齊斗)와 강화학파는 신유학의 주체성과 실심의 정신을 발휘한 하나의 사례이다. 정인보(鄭寅普)는 학맥에 있어 강화학파에 속하지만, 양명학이 실심의 자각과 실천에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체성의 원리가 정인보로 하여금 주희 도덕이론(인심도심론)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따르도록 이끌었다는 점이다. 이기적인 욕구(자사심)를 옳고 마땅한 것을 자각한 마음(실심)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심(감각욕구)과 도심(도덕심)의 갈등상황에서 도심을 선택하여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받도록 제어하라는 주희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 같은 윤리학은 행위의 내적 동기나 의무감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사실상 주희와 왕양명에 있어서도 근본적 차이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이점에서 근현대 한국학을 유교전통과의 단절이 아닌 연속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양명학의 근본정신과 체계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인보의 한국학이 유교전통과의 단절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평가는 사족처럼 보인다.

(4) 박태옥의 「위당 정인보 시문에 나타난 미의식과 '실심'의 문제」는 정인보의 문학론을 검토한 글이다. 정인보는 양명학자와 역사학자일 뿐만 아니라, 힘이 넘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린 글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박태옥은 정인보의 미의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의 미의식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실심을 토대로 강유(剛柔)를 포용한 미의식이다. 정인보는 실심을 통해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자신과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는 전일한 노력을 기울였다. 강고한 의지와 부드러운 인간적 정서가 겸비되어 나타난다. 둘째, 청진(淸眞)함의 미감을 강조하는 미의식이다. 미추(美醜)나 청탁(淸濁)의 미적 감각도 마음의 조작이 없이 실심에 의해 저절로 구별된다. 그의 시문에서 아름다움은 청진하고 고졸한 미의식의 형태로 표현된다. 셋째, 감통의 인격미이다. 정인보가 강조한 실심은 개인과 세계의 영역을 아우르는 감통을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그것은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는 경지로 발전해 나간다."

(5) 한정길의 「난곡(蘭谷) 이건방(李建芳)의 양명학 이해와 현실 대응 논리」는 한국 근대 대표적인 양명학자인 이건방의 양명학 이해와 그의 현실 대응 논리 및 사회진화론과의 접변 양상을 탐구한 글이다.

한정길은 이렇게 정리한다. "이건방의 양명학은 하곡학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건방은 하곡과는 달리 양명학을 하나의 경세학으로 읽어내는 특징을 보인다. 이 점은 정인보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이건방은 양명학을 사상적 토대로 하여 현실인식과 대응논리를 마련한다. 그는 당대의 현실을 약육강식의 생존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로 인식한다. 그리고 조선의 멸망 원인을 이 시대적 추세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서 찾고, 당대의 개화파와 수구파를 모두 비판한다. 그는 도의의 실질을 밝히고 민중들을 깨우쳐 도의의 실천 방향인 구국의 길로 나서게 함으로써 당시 조선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건방은 사회진화론이 지배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인간사회의 정론(正論)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론은 강자가 모질고 사납게 구는 것을 꾸짖을 뿐 아니라 약자를 포용해야 한다고 말한 뒤에야 비로소 수립된다. 이것은 힘의 논리에 저항하는 일종의 평화주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방은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전통학문에서 사용하던 기본 개념들에 변용을 일으킨다."

(6) 김세정의 「한국 근대 양명학에 관한 연구 현황과 전망」은 2016년까지 지난 60여 년간 진행된 한국의 근대양명학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수집 정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근대양명학 연구의 과제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했다.

김세정의 분석은 이렇다. "한국 근대의 대표적인 양명학자로는 이건창(李建昌:1852-1898), 박은식(朴殷植: 1859-1925), 정인보(鄭寅普: 1892-미상)를 들 수 있다. 먼저 지난 60년간 진행된 이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역서 저서 박사논문 석사논문 연구논문 이건창 7종 2종 1편 13편 34편, 박은식 12종 7종 9편 54편 165편, 정인보 3종 1종 3편 6편 84편이다. 이건창은 1987년 『이건창문집(李建昌全集)』이 간행되고, 『당의통략(黨議通略)』 번역본 7종이 있다. 박은식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가장 많고 질적으로도 가장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1975년 〈박은식전서(朴殷植全書)〉가 간행되고, 주해작업을 거친 『왕양명실기』(2010)와 『왕양명선생실기』(2011)가 출간되었다. 『한국통사(韓國通史)』 번역본 7종을 비롯하여 총 15종의 번역서가 있다. 정인보에 관한 연구물은 박은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담원국학산고(薝園國學散藁)』(1955), 『담원정인보전집(薝園

鄭寅普全集)』(1983), 『양명학연론(陽明學演論)』(1972)이 간행되었다. 단행본의 경우에는 김삼웅의 『위당 정인보 평전』 단 한 권뿐이다. 한국근대양명학 연구와 관련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한국양명학자들에 대한 철학 분야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박은식과 정인보의 경우 근대 중국과 일본의 양명학과의 영향 관계와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근대양명학의 현대적 만남과 현대적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기타(2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신향림	노수신과 허균의 욕망론과 수양론 – 양명학 수용과 관련하여 –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2	김용재	韩国阳明学研究的本质问题	퇴계학논집	영남퇴계학연구원

(1) 신향림의 「노수신과 허균의 욕망론과 수양론: 양명학 수용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노수신과 허균의 사상이 유사하며 이들의 사상적 유사성이 양명학 수용의 결과임을 논증한 글이다. 허균과 양명학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많이 소개되었지만 노수신과 양명학을 연결 지은 논의는 많지 않다.

신향림은 이렇게 정리한다. "노수신은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니 예교로 닦아서 도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허균은 식욕과 성욕이 본성이라고 주장했고, 예교가 자유로운 삶을 구속할 수 없다고 했다. 노수신은 『효제부』에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지는 만물의 이치

를 다 포괄하고 있는 자족한 것이라서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서 성인이 되는 일에 이르기까지의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양지를 들어 행하는 것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허균은 신분에 관계없이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은 평등하다고 하였고 성인만이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 『중용』의 구절은 사람을 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말이라고 했다. 허균과 노수신은 미발, 심체, 본성을 체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발 심체 본성을 체인하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노수신은 마음 양지는 천지만물의 모든 이치를 포괄하고 있는 자족하고 무외(無外)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마음 밖의 이치로 마음을 닦는 주희의 격물 공부는 불가능하다. 노수신과 허균이 말한 미발 심체 본성을 체인 공부는 마음이 본성이자 천리인 마음의 본체를 스스로 지각하여 흐려진 마음을 되돌리는 양명학의 공부법이다. 욕망이 본성이고 본성을 체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양지를 실천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양명학을 수용한 노수신과 허균이 공유하는 독특한 견해들이다."

신향림의 독해는 상당히 편향적이고 양명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혐의를 준다. 노수신이 자족하고 무외한 양지를 주장했다고 하여 주자의 즉물궁리 공부를 부정했다는 주장도 상당히 의심이 간다.

(2) 김용재의 「한국양명학 연구의 본질적 문제(韩国阳明学研究的本质问题)」는 하곡학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그 의의와 한계를 지적한 글이다. 특히 한국사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문집 등의 원전자료를 도외시한 채, 연구논문(2차 자료)이나 저서(3차 자료)에만 몰입한 채, 스스로 원전자료 내에서의 가치를 찾아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상누

각(沙上樓閣)과 같다는 비판을 개진한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정제두 양명학의 독자성을 확인하고 수립하는 과제는 한국 양명학 연구자들의 숙명과도 같은 사명이다. 이 작업은 중국 양명학과의 동이를 따지는 작업을 필히 거치게 된다. 게다가 정제두가 임정종욕 네 글자를 양명학의 폐단으로 지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주자학에서 양명학을 비판했던 창광방자의 폐단을 극복한 정제두 식의 양명학 수립이 요청된다. 물리(物理), 생리(生理), 진리(眞理) 프레임이 대표적이다. 단순하게 구분하면, 물리는 주자학, 생리는 양명학, 진리는 하곡학이다.

생리와 진리 프레임은 체용일원을 이론적 틀로 사용한다. 박현정이 "정제두의 체용관은 왕수인의 기본적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즉체즉용(卽體卽用), 즉용즉체(卽用卽體)를 기반으로 한다. 정제두는 즉체즉용의 바탕 위에 다시금 본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을 띤다. 작용에 대한 본체의 우선성과 질적 차별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본체 중심의 체용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제두는 즉체즉용, 즉용즉체를 말하면서도 다시 본체를 중심으로 하는 체용관을 전개하였다."

박현정의 주장은 이 논리를 본격적으로 학계에 소개한 김교빈의 말과 동일하다. "왕양명이 양지를 완성시키는 학문[致良知學]이 매우 정밀하기는 하지만, 그 폐단이 혹 정에 맡겨서 욕심을 좇을 걱정이 있음을 깨달았다.(이 넉자는 양명학의 병을 바로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양명과 달리 '이'를 구조적으로 나눈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

러므로 하곡이 양지를 체용으로 구분한 근본적인 이유도 정에 맡겨서 욕심을 좇을[任情從欲]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김교빈, 「양명학자 정제두의 철학사상」, 1995년 147쪽)

정제두는 김교빈이나 박현정이 분석한대로 체용을 사용했을까? 김교빈의 관점을 확대재생산한 이상호(「정제두 양명학의 주왕화해적 특징」, 『동양철학연구』 40집, 2004)는 리의 중층구조(물리, 생리, 진리)를 바탕으로 진리지심(眞理之心)과 생리지심(生理之心)을 나누고 이들이 체용관계가 된다고 본다. 또 진리(眞理)와 생리(生理)는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의 관계와 유사하고 진리지심과 생리지심은 체용관계로 주자학의 성정체용(性情體用) 구조와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이상호의 입장과 다르다. 〈양지체용도〉는 민이승의 양지 이해를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체용은 일원이며 용을 통해 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양지를 체용으로 밝힌 이유는 체용을 구분하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용이 일원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에 있다. 김윤경(「16 – 17세기 한국 양명학 성립과정의 공부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년, 179쪽)은 이상호와 다른 입장을 제시한다. '정제두가 리를 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 본지가 리를 구분하여 진체(眞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주자학의 성정 관계에서는 주재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제두의 체용관념과는 다르다. 또 진리와 생리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며, 진리의 개념에서 기(氣)가 제외된 것도 아니다.'

양지를 체용론으로 설명하면 천리명각(天理明覺)이다. 천리는 본체이고 명각은 작용이다. 천리는 주자학의 성(性)에 해당하고 천리명각이

양지(良知)에 해당한다. 성과 양지의 차이는 직관적으로 보이듯이 명각이 있는냐 없느냐다. 양지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천리와 명각의 상즉성을 긍정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양명학은 즉체즉용을 제창할 수밖에 없다. 창광방자의 양지학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즉체즉용을 버린다면 이른바 교왕지과(矯枉之過)를 면할 수 없다.

4. 평가와 전망

한국양명학 논문 편수는 14년도 8편, 15년도에 12편, 16년도 15편, 17년도 16편, 18년도는 19편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양명학 연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1년 동안 중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 양명학 연구 논문 편수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조선유학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명학의 비중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18년도에 전체 편수가 늘기는 했지만 이른바 문제작은 보이지 않는다.

매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향후 조선 양명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새로운 양명학자의 발굴과 주제들을 탐색하여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문헌의 제약이다. 이 부분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보완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18년도 논문 저자 중에서 김윤경이 눈의 띈다. 현재 강화학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연구 편수를 발표했다.

18년도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한 편을 꼽으라면 김윤경의 「하곡학(霞谷學)과 다산학(茶山學)의 사상적 연계 고찰을 위한 시론(試論)－사덕(四德)·사단론(四端論)을 중심으로」를 추천한다. 정제두와 정약용이 사덕과 사단을 논하는 유사점에 착안한 본 논문은 아직은 시론 수준이지만 양명학과 실학을 비교 검토하는 중요한 매개 고리를 제공한다.